
		보도자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인천광역시		
		배포 일자	2021년 3월 17일(수) 총 2매			
담당 부서	생활보장과	담당	• 자활지원팀장 유병임 ☎440-1541 • 담당자 김태수 ☎440-1542	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올해 자활사업에 594억 원 투입 저소득층 자립 지원
- 3,900명에 자활일자리 제공 등 2021년 자활사업 지원계획 발표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17일 올해 인천의 자활사업 비전을 담은 ‘2021년 자활사업 지원 계획’을 발표했다.
- 이번에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인천시의 2021년 자활사업 지원계획은 올해 594억 원(국비 495 , 시비 61, 군구비 38)을 투입하여, 자활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와 자립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.
- 올해 인천시의 자활사업 지원 계획의 주요사업으로는
 - 전년대비 약 200명을 확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수급자 등 3,900명에 대한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, 자활근로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350여명에게는 자활장려금을 지급한다.
 -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등 5개 통장사업에 89억 원을 지원한다.

- 자활참여자 교육, 자활기업 기능보강, 자활사업장 설치 등에 자활기금 17억 원을 지원한다.
-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공유재산 임대 등으로 인천형 자활사업장 ‘꿈이든’ 5개소를 신규로 확충하여 자활사업 인프라를 강화한다.
-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아이스팩·다회용기·커피박수거, 재활용 등 친환경 자원순환사업과 임대주택 운영관리사업 등 자활사업의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참여도 확대한다.
- 또한, 독거노인,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4,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.
- 아울러, 지난 3월 12일 종료된 정부의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을 연장한 가칭 ‘인천형 자립일자리 지원사업’을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.

- 한편, 인천시는 작년에 ‘19년 대비 627명(20.3%↑)이 증가된 3,718명에게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, 5,095명에게 통장사업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했으며, ‘꿈이든’ 자활사업장 8개소를 확충했다.
-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“올해 인천시는 지역특색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 지원을 확대하여, 코로나-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일자리 확충과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